



iSSUE BRIEFING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연구책임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306

연구진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최지훈 전문연구위원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요약

합계출산율의 이해와 주요 영향 요인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전망치)'임. 합계출산율 증감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인구와 연령구조, 출생아 수(조출생율), 혼인건수(조혼인율), 미혼율·유배우자율,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과 출산율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전북자치도, 대도시화되는 결혼과 출생 경향

- '23년 전북 합계출산율은 0.78명(전국11위, 출생아수 6,625명)이며, '18년 1.1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고, 울산·대전·광주 등 대도시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15년 출생아수가 1만 5천 명 이하를 기록하면서 '16년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본격적인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됨
- 조출생률과 조혼인율은 부산·경남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 첫째, 만혼화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의 감소
- 둘째, 타 지역과 유사한 전북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 대비 30~34세 연령의 낮은 인구비율과 높은 미혼율
- 셋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 전국단위에서도 낮은 수준임
- 마지막으로 가임연령대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중 특히 25~29세 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30~34세 무자녀 증가 비율도 높게 나타나, 전북 합계출산율 저조는 가임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으로 논의될 수 있음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과제

- 첫째, 합계출산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둘째, 가임연령 여성의 미혼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함께 타지역 대비 주출산연령대(30~34세)의 미혼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30~34세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필요
- 셋째,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가족 이주 도모 정책 발굴 및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정책 강화와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등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 필요
- 넷째, 전북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타지역 대비 낮고, 특히 주출산 연령대인 30~34세의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무엇보다 30~34세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 및 직장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 등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 필요
-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활용한 2030대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 강화 필요

키워드 합계출산율, 가임연령(15~49세)여성, 출생아수(조출생율), (조)혼인율, 미혼율, 주출산연령,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1 합계출산율의 이해와 주요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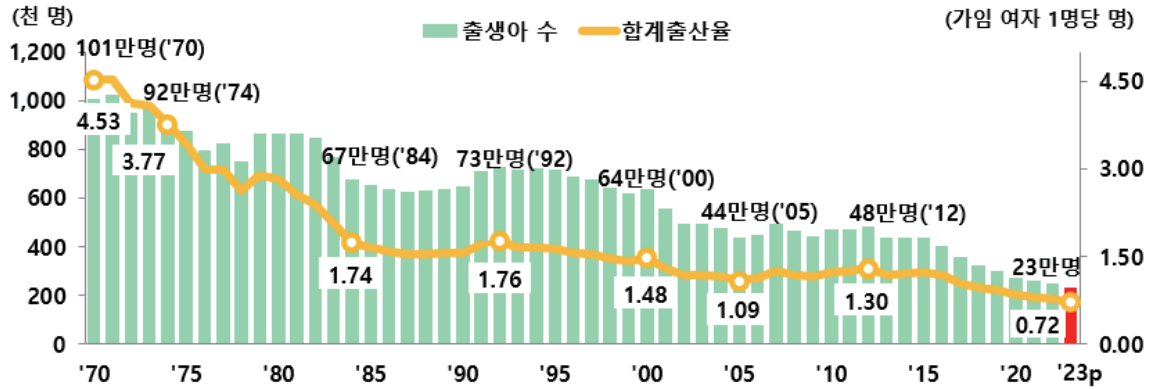
- 통계청의 출생통계 작성 후 주요 지표들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생 관련 뉴스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생변화를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의 증감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력에 대한 성적표로까지 평가 및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높은 이슈를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무엇 때문에, 왜 감소했고 증가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전망치)'로 여성 1인당 2명, 1명으로 표기하나 '가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산출됨
 - (가상적인 가정) 가임여성(15~49세) 인구 대상, 15세 여성이 가임기가 완결되는 49세까지 향후 35년간 특정 연령별 출산율 패턴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산출되는 예측치임. 이에 15세 여성이 49세가 됐을 때의 최종 출산율과는 차이가 있음
 - (합계출산율 공식) 출산이 가능한 가임여성(15~49세)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모두 합한 수치
 - * 연령대별 출산율은 '해당연령이 1년간 낳은 출생아 수' ÷ '해당연령의 여성 수'로 구하며, 15~49세의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도출됨
- 합계출산율 증감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산출 공식과 연동하여 가임여성의 인구와 연령구조, 출생아 수(조출생율), 그리고 한국은 서구사회와 다르게 혼인을 토대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건수(조혼인율), 미혼율·유배우자율,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과 출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북자치도, 대도시화되는 결혼과 출생 경향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현황

-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에서 0.06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도 23만 명대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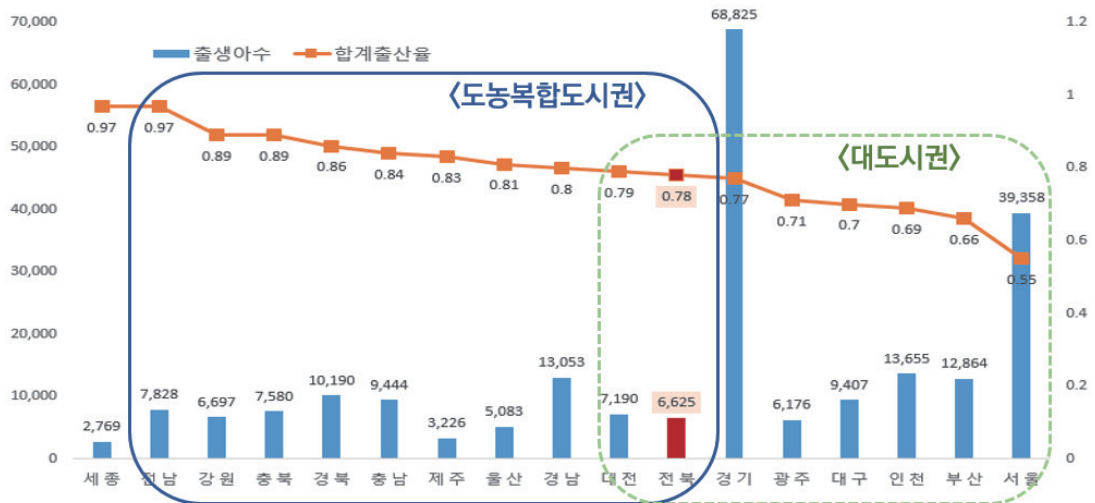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그림 1] 한국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던 세종도 0.97명(출생아수 2,769명)으로 전국 시·도 모두 1.0명 대 아래로 떨어짐
 - 합계출산율은 서울 0.55명으로 가장 낮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음
-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전국 11위, 출생아 수 6,625명)으로 세종·전남과는 0.19명, 강원·충북과는 0.11명의 격차를 보임. 한편, 대전(0.79명), 경기(0.77명)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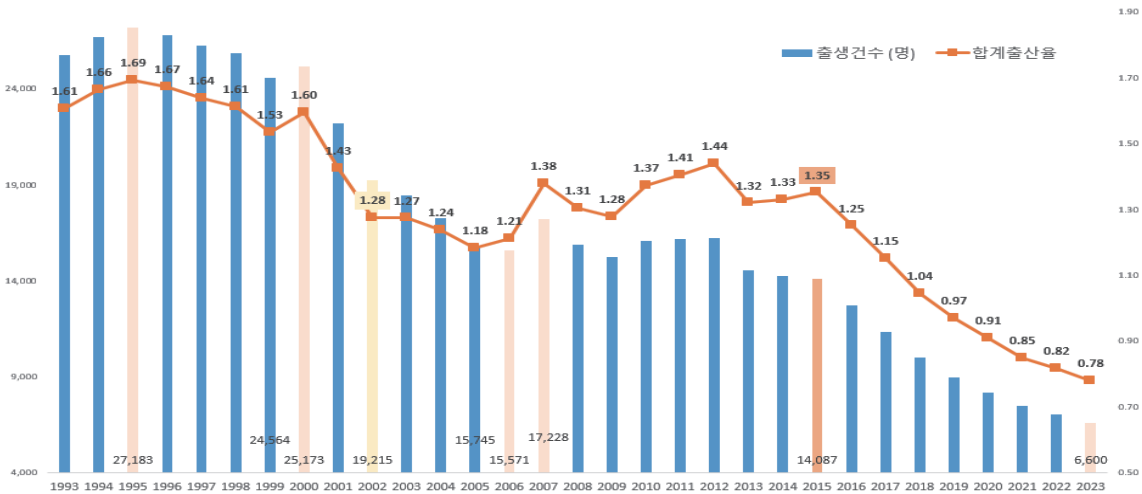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현황(2023년)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전북자치도 출생아 수는 2002년에 2만 명 선이 붕괴됐고,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미만인 1.28명을 기록함.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05년 합계출산율 1.18명 최저 기록과 2006년 1.21명으로 재증가를 거쳐 2007년(황금돼지띠 해) 출산율 1.38명, 출생아수 17,228명까지 반짝 증가했지만 2009년 다시 1.28명으로 감소함
- 특히, 2015년 출생아 수 1만 5천 명 이하를 기록하면서,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며 본격적인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됨
 - 2016년을 기점으로 출생아(12,698명)보다 사망자(14,062명)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됨
 - 전북자치도 인구감소 현상은 합계출산율 감소 현상을 반영하여 유사한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1993년~2023년)

자료 :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 출생아건수),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는 인구유출에 의한 사회감소 요인보다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에 의한 자연감소”가 더 큰 요인으로 작동 중임
 - 2023년 기준 전입인구 188,788명, 전출인구 193,245명으로 -4,457명이 순유출되었으나, 출생아수 6,600명, 사망자수 17,200명으로 -10,600명이 자연감소하여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가 저출생이라 볼 수 있음

[표 1] 전북자치도 연도별 총인구수, 출생건수, 사망건수, 자연증가건수 및 순이동 현황(2013~2023)

구분	총인구수 (명)	출생건수 (명)	사망건수 (명)	자연증가건수 (명)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2008	1,855,772	15,878	13,241	2,637	322,495	333,045	-10,550
2010	1,868,963	16,100	13,188	2,912	305,789	308,237	-2,448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구분	총인구수 (명)	출생건수 (명)	사망건수 (명)	자연증가건수 (명)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2012	1,873,341	16,238	13,700	2,538	271,835	275,126	-3,291
2014	1,871,560	14,231	13,563	668	274,337	276,900	-2,563
2015	1,869,711	14,087	13,721	366	261,832	264,662	-2,830
2016	1,864,791	12,698	14,062	-1,364	248,188	252,607	-4,419
2017	1,854,607	11,348	14,295	-2,947	232,047	239,253	-7,206
2018	1,836,832	10,001	14,552	-4,551	243,324	257,097	-13,773
2019	1,818,917	8,971	14,525	-5,554	228,775	241,523	-12,748
2020	1,804,104	8,165	14,691	-6,526	249,083	257,577	-8,494
2021	1,786,855	7,475	15,049	-7,574	223,710	229,511	-5,801
2022	1,769,607	7,032	17,852	-10,820	199,432	204,547	-5,115
2023	1,754,757	6,600	17,200	-10,600	188,788	193,245	-4,457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자치도, 출생 주요 통계지표의 대도시화

-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은 '14년부터 '18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광역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와 강원 다음으로 저조했음. 2018년 합계출산율이 1.1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이외 가장 낮은 수치와 울산·대전·광주 등 대도시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은 '16년부터 급감하다 '18년 감소폭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코로나19 이후 '22년부터 감소폭이 다소 완만해짐

[표 2]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현황(2013~202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14년 대비 23년 증감률
전국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47
서울	0.97	0.98	1.00	0.94	0.84	0.76	0.72	0.64	0.63	0.59	0.55	-0.42
부산	1.05	1.09	1.14	1.10	0.98	0.90	0.83	0.75	0.73	0.72	0.66	-0.39
대구	1.13	1.17	1.22	1.19	1.07	0.99	0.93	0.81	0.79	0.76	0.70	-0.43
인천	1.20	1.21	1.22	1.14	1.01	1.01	0.94	0.83	0.78	0.75	0.69	-0.51
광주	1.17	1.20	1.21	1.17	1.05	0.97	0.91	0.81	0.90	0.84	0.71	-0.46
대전	1.23	1.25	1.28	1.19	1.08	0.95	0.88	0.81	0.81	0.84	0.79	-0.44
울산	1.39	1.44	1.49	1.42	1.26	1.13	1.08	0.98	0.94	0.85	0.81	-0.58
세종	1.44	1.35	1.89	1.82	1.67	1.57	1.47	1.28	1.28	1.12	0.97	-0.47
경기	1.23	1.24	1.27	1.19	1.07	1.00	0.94	0.88	0.85	0.84	0.77	-0.46
강원	1.25	1.25	1.31	1.24	1.12	1.07	1.08	1.04	0.98	0.97	0.89	-0.36
충북	1.37	1.36	1.41	1.36	1.24	1.17	1.05	0.98	0.95	0.87	0.89	-0.48
충남	1.44	1.42	1.48	1.40	1.28	1.19	1.11	1.03	0.96	0.91	0.84	-0.60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14년 대비 23년 증감률
전북	1.32	1.33	1.35	1.25	1.15	1.04	0.97	0.91	0.85	0.82	0.78	-0.54
증감	-0.12	0.01	0.02	-0.1	-0.1	-0.11	-0.07	-0.06	-0.06	-0.03	-0.04	
증감률		0.76	1.50	-7.41	-8.00	-9.57	-6.73	-6.19	-6.59	-3.53	-4.88	
전남	1.52	1.50	1.55	1.47	1.33	1.24	1.23	1.15	1.02	0.97	0.97	-0.55
경북	1.38	1.41	1.46	1.40	1.26	1.17	1.09	1.00	0.97	0.93	0.86	-0.52
경남	1.37	1.41	1.44	1.36	1.23	1.12	1.05	0.95	0.90	0.84	0.80	-0.57
제주	1.43	1.48	1.48	1.43	1.31	1.22	1.15	1.02	0.95	0.92	0.83	-0.60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자치도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13년 7.8명에서 ’23년 3.8명으로 10년간 약 4명이 감소하여 전국 평균과 유사한 낙폭을 보였지만, 전남(-3.8명)과 강원(-2.8명)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낙폭으로 감소함. 전북은 2019년부터 광역도 단위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조출생률은 2016년에 전년 대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급감했고, 2020년까지 감소폭이 다소 높았으나 2022년부터 다소 완만해지고 있음

[표 3] 전국 시도별 조출생률 현황(2013~202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14년 대비 23년 증감률
전국	8.6	8.6	8.6	7.9	7.0	6.4	5.9	5.3	5.1	4.9	4.5	-4.1
서울	8.4	8.4	8.4	7.7	6.7	6.0	5.6	5.0	4.8	4.5	4.2	-4.2
부산	7.4	7.5	7.7	7.2	6.2	5.6	5.0	4.5	4.3	4.3	3.9	-3.5
대구	7.8	7.8	7.9	7.4	6.5	5.9	5.4	4.6	4.5	4.3	4.0	-3.8
인천	9.0	9.0	8.8	8.1	7.0	6.9	6.3	5.5	5.1	4.9	4.6	-4.4
광주	8.7	8.7	8.5	7.9	6.9	6.3	5.8	5.1	5.5	5.2	4.3	-4.4
대전	9.3	9.2	9.1	8.3	7.2	6.3	5.7	5.1	5.1	5.3	5.0	-4.3
울산	9.9	10.0	10.1	9.4	8.1	7.1	6.6	5.8	5.5	4.9	4.6	-5.3
세종	9.5	9.7	14.8	14.6	13.4	12.5	11.7	10.0	9.8	8.5	7.2	-2.3
경기	9.3	9.2	9.2	8.4	7.4	6.9	6.4	5.9	5.7	5.6	5.1	-4.2
강원	7.2	7.0	7.1	6.5	5.8	5.4	5.4	5.1	4.8	4.8	4.4	-2.8
충북	8.8	8.5	8.6	8.1	7.2	6.7	5.9	5.4	5.1	4.7	4.8	-4.0
충남	9.2	8.9	9.0	8.3	7.5	6.8	6.3	5.7	5.2	4.8	4.5	-4.7
전북	7.8	7.7	7.6	6.8	6.1	5.5	4.9	4.5	4.2	4.0	3.8	-4.0
증감		-0.1	-0.1	-0.8	-0.7	-0.6	-0.6	-0.4	-0.3	-0.2	-0.2	
증감률		-1.3	-1.3	-10.5	-10.3	-9.8	-10.9	-8.2	-6.7	-4.8	-5.0	
전남	8.1	7.8	8.0	7.4	6.5	6.0	5.8	5.3	4.6	4.3	4.3	-3.8
경북	8.3	8.2	8.3	7.7	6.7	6.0	5.5	4.9	4.6	4.3	4.0	-4.3
경남	8.9	9.0	8.9	8.1	7.1	6.3	5.7	5.0	4.7	4.3	4.0	-4.9
제주	9.1	9.3	9.2	8.7	7.8	7.3	6.8	6.0	5.6	5.3	4.8	-4.3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출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출생아 수는 '16년부터 '20년까지 한 해 1,000명 이상씩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 폭이 완만해짐
 - 2018년 출생아수 감소폭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여 합계출산율의 감소폭도 가장 컸음

[표 4] 전북자치도 출생아 수 현황(2013~2023)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명)	14,555	14,231	14,087	12,698	11,348	10,001	8,971	8,165	7,475	7,032	6,600	
전년 대비	증 감	-1,683	-324	-144	-1,389	-1,350	-1,347	-1,030	-806	-690	-443	-432
	증 감 륜		-2.2	-1.0	-9.9	-10.6	-11.9	-10.3	-9.0	-8.5	-5.9	-6.1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조혼인율, 2016년부터 8년째 전국 최저수준

- 출산율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를 보면, 2023년 5,483건으로 '22년(5,394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2013년(9,823건)과 대비해서는 -44.2%(-4,340건)가 감소한 수치임
- 혼인 건수는 2021년에 5,325건의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가, 2022년부터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으로 소폭씩 증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2022년은 69건, 2023년은 89건 등 최근 2년간 약 160여건의 혼인건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19 동안(2020년, 2021년) 1,700여건 넘게 급감한 혼인건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표 5] 전국 시도별 혼인 건수 현황(2013~202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전국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1,967
서울	68,819	64,823	64,193	57,643	53,776	52,005	48,261	44,746	37,012	35,752	36,324	572
부산	20,734	18,927	18,553	17,113	15,677	14,781	13,780	12,128	11,081	10,618	10,303	-315
대구	13,601	12,552	12,545	12,216	11,392	10,967	9,880	8,340	7,287	7,497	8,150	653
인천	18,010	17,251	17,118	16,092	15,235	14,850	13,401	11,574	10,881	10,849	11,621	772
광주	8,820	8,213	7,945	7,468	7,141	6,632	6,297	5,560	4,901	4,902	5,169	267
대전	9,621	9,118	8,805	8,325	7,697	7,377	6,602	5,976	5,419	5,662	5,212	-450
울산	7,998	7,674	7,483	7,006	6,331	5,894	5,442	4,737	4,077	4,013	4,274	261
세종	743	920	1,498	1,612	1,728	2,038	2,039	1,854	1,627	1,664	1,705	41
경기	77,649	74,306	73,950	70,052	66,429	66,877	62,356	57,814	54,658	54,178	54,221	43
강원	7,946	7,785	7,876	7,468	7,295	6,994	6,762	5,868	5,622	5,572	5,494	-78
충북	9,307	8,774	8,872	8,334	7,990	7,827	7,239	6,682	5,882	6,185	6,212	27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총남	12,482	12,040	12,331	11,792	10,961	10,970	9,826	8,493	8,016	8,017	1	8,264	247
전북	9,823	9,211	9,060	8,216	7,817	7,219	7,005	6,053	5,325	5,394	69	5,483	89
전남	9,995	9,357	9,275	8,554	8,049	7,587	7,413	6,365	6,201	6,181	-20	6,157	-24
경북	15,421	14,183	14,273	13,363	12,190	11,687	10,637	9,046	8,163	8,180	17	8,128	-52
경남	20,291	19,056	18,671	17,580	15,978	14,996	13,613	11,900	10,531	10,504	-27	10,232	-272
제주	3,638	3,593	3,676	3,705	3,654	3,638	3,358	2,981	2,661	2,718	57	2,614	-104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한편,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23년 3.1건으로 부산·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보였고, 전국평균 보다도 -0.7건이 낮았음
 - 조혼인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현상은 2013년부터 나타났으며, 전국평균보다 매년 -0.7~ -1.1건 정도 낮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음
- 전북자치도 조혼인율은 2016년 4.4건으로 전국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최근까지 약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초혼연령이 상승하여 20대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졌지만, 늦어진 결혼으로 인한 30대 초반의 출산율 증가는 큰 변화가 없음

[표 6] 전국 시도별 조혼인율 현황(2013~202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14년 대비 23년 증감률
전국	6.4	6.0	5.9	5.5	5.2	5.0	4.7	4.2	3.8	3.7	3.8	-4.1
서울	6.9	6.5	6.5	5.9	5.5	5.4	5.0	4.7	3.9	3.8	3.9	-4.2
부산	5.9	5.4	5.3	4.9	4.5	4.3	4.1	3.6	3.3	3.2	3.1	-3.5
대구	5.5	5.1	5.1	5.0	4.6	4.5	4.1	3.5	3.1	3.2	3.4	-3.8
인천	6.4	6.0	5.9	5.5	5.2	5.1	4.6	4.0	3.7	3.7	3.9	-4.4
광주	6.0	5.6	5.4	5.1	4.9	4.6	4.3	3.8	3.4	3.4	3.6	-4.4
대전	6.3	6.0	5.8	5.5	5.1	5.0	4.5	4.1	3.7	3.9	3.6	-4.3
울산	7.0	6.6	6.4	6.0	5.4	5.1	4.7	4.2	3.6	3.6	3.9	-5.3
세종	6.4	6.7	8.2	7.1	6.6	6.9	6.2	5.3	4.5	4.4	4.4	-2.3
경기	6.4	6.1	6.0	5.6	5.2	5.2	4.8	4.4	4.1	4.0	4.0	-4.2
강원	5.2	5.1	5.1	4.9	4.7	4.6	4.4	3.8	3.7	3.6	3.6	-2.8
충북	6.0	5.6	5.6	5.3	5.0	4.9	4.6	4.2	3.7	3.9	3.9	-4.0
충남	6.2	5.9	6.0	5.7	5.2	5.2	4.7	4.0	3.8	3.8	3.9	-4.7
전북	5.3	5.0	4.9	4.4	4.2	3.9	3.9	3.4	3.0	3.0	3.1	-4.0
전남	5.3	4.9	4.9	4.5	4.3	4.0	4.0	3.4	3.4	3.4	3.4	-3.8
경북	5.8	5.3	5.3	5.0	4.6	4.4	4.0	3.4	3.1	3.1	3.2	-4.3
경남	6.1	5.7	5.6	5.3	4.8	4.5	4.1	3.6	3.2	3.2	3.1	-4.9
제주	6.2	6.0	6.0	5.9	5.7	5.5	5.1	4.5	4.0	4.0	3.9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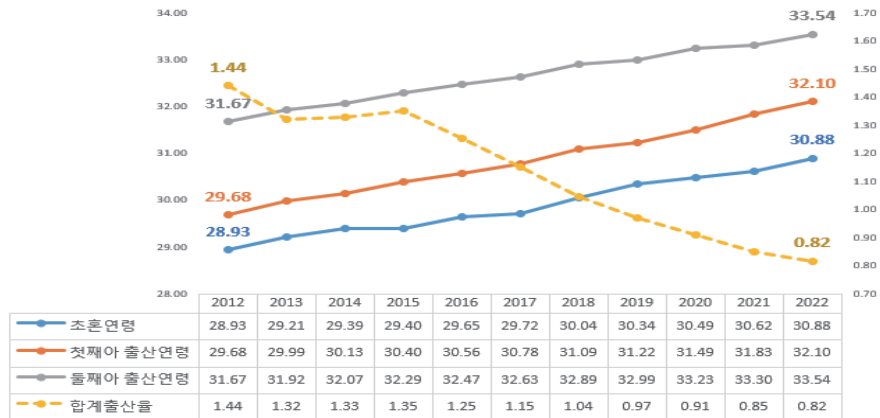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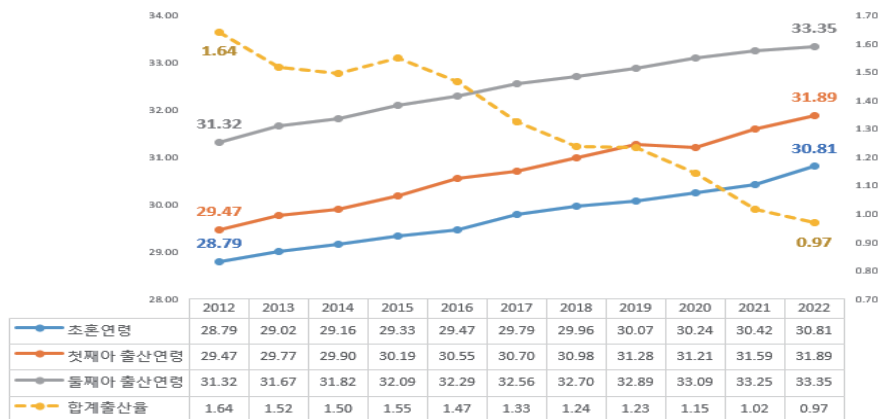
3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 만혼화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가임기간의 감소로 출산율 저하

○ 전북자치도 여성의 초혼연령은 '12년 28.93세에서 '22년 30.88세로 10년간 1.95세가 상승. 초혼연령 상승과 함께 첫째아 출산연령도 '12년 29.68세에서 '22년 32.10세로 2.42세가 증가, 둘째아 출산연령도 '12년 31.67세에서 '22년 33.54세로 1.87세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함



[그림 4] 전북 초혼연령,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5] 전남 초혼연령,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교육기간의 증가와 취업준비기간 확대 등으로 초혼연령이 지속 상승하면서 첫째자녀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출산시기 만큼 가임기간 감소로 추가 출산과 출산율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고 있음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총출생아 수와 기대자녀 수는 모두 감소하며, 결혼연령 1세 상승 시 총출생아 수가 0.067명 감소한다고 추정한 연구결과(변용찬 외, 2010) 등을 근거로 향후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 대비 높은 미혼율(특히 30~34세 연령대)

- 2023년 전국 가임연령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21.7%(11,133,445명)이고, 전북자치도 가임연령 여성인구는 18.8%(329,906명)로 전국 평균보다 약 2.9%p 낮음
- 전북자치도 가임연령 여성인구(329,906명)는 전남(309,664명), 충북(311,572명), 강원(279,762명)보다 많고, 전체 인구의 가임연령 여성인구 비율도 18.8%로 전남(17.2%), 강원(18.3%)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출생아 수는 전북 6,600명, 전남 7,800명, 강원 6,700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합계 출산율 공식상 전북의 합계출산율이 전남, 강원보다 낮을 수밖에 없음
- 한편, 전북자치도 가임연령 여성인구 중 주출산연령(25~39세) 비율은 강원·전남 대비 각각 1.1%p, 0.4%p 낮고, 출생아 수 또한 낮게 나타남
 -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비율은 강원, 전남 등 보다 약간 높지만, 출산에 핵심적인 연령인 주출산연령 비율은 전국(42.9%)에서 경남(38.1%)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표 7] 가임연령 여성인구 및 주출산 연령과 주요 출산통계지표 현황(2023)

구분	가임여성수 (전체)	총인구의 가임여성 비율	주 출산 연령				가임여성 인구대비	출생건수 (명)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천명당)	초혼 연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25-29	30-34	35-39	합계							
전국	11,133,445	21.69	1,619,197	1,613,298	1,541,259	4,773,754	42.9	230,000	0.72	4.5	31.45	193,657	3.8
서울	2,328,328	24.81	417,918	387,882	325,608	1,131,408	48.6	39,400	0.55	4.2	32.42	36,324	3.9
광주	325,397	22.93	47,784	42,886	41,342	132,012	40.6	6,200	0.71	4.3	31.26	5,169	3.6
대전	327,808	22.73	50,700	46,402	42,188	139,290	42.5	7,200	0.79	5.0	31.19	5,212	3.6
세종	99,091	25.64	10,138	13,942	16,130	40,210	40.6	2,800	0.97	7.2	31.76	1,705	4.4
강원	279,762	18.31	36,719	37,012	36,890	110,621	39.5	6,700	0.89	4.4	31.08	5,494	3.6
충북	311,572	19.55	43,341	42,080	42,907	128,328	41.2	7,600	0.89	4.8	30.81	6,212	3.9
전북	329,906	18.80	43,887	40,990	41,953	126,830	38.4	6,600	0.78	3.8	31.00	5,483	3.1
전남	309,664	17.16	40,145	39,198	40,833	120,176	38.8	7,800	0.97	4.3	30.83	6,157	3.4

자료 : 「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 및 모의 연령대별 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초혼연령 상승으로 만혼화가 심화되면서 가임연령여성의 미혼율을 살펴본 결과, 전국 가임연령여성 미혼율은 2020년 42.5%로, 5년 전 37.2%에서 5.3% 증가하였고, 20~24세 여성 미혼 비율은 95% 이상이며, 25~29세 미혼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음
- 전북자치도의 가임연령대별 미혼율은 2015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2020년 가임여성 평균 미혼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이 미혼으로 나타남. 특히, 주출산연령인 30~34세 미혼율은 2020년 41.8%로 2015년(34.1%) 대비 7.7%p가 상승하여 타 연령대 보다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남(3.4%p)·강원(4.6%p)·세종(6.7%p)의 증가폭 보다 큼
- 전북자치도 가임연령 여성인구 규모와 유사한 전남·강원의 미혼율과 비교해 보면, 2015년, 2020년 모두 전남·강원보다 높았고, 특히 2020년 30~34세(주출산연령) 미혼율이 41.8%로 전남·강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준 30~34세 미혼율의 경우 전북 41.8%, 강원 37.8%, 전남 34.7%로 강원과는 4%p, 전남과는 7.1%p의 격차를 보임. 해당 연령대의 지역간 미혼율 차이가 연령대 출산율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반영되는 것을 시사함. 즉, 전북자치도의 저조한 합계출산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임연령대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30~34세의 높은 미혼율과 함께 낮은 출산율이라 볼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경우 현재 추세대로 대도시권처럼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미혼율 증가가 만혼의 비혼화로 이어질 경우,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여성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높아져 결국 합계출산율을 낮출 수 있음

[표 8]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미혼율 현황(2015, 2020)

구분	전국 평균		전북		강원		전남		세종		서울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24세	96.8	98.0	96.3	96.8	93.5	96.1	94.5	96.5	96.6	98.3	98.4	99.2
25~29세	77.3	81.9	72.8	76.5	69.3	70.9	69.4	73.2	62.6	68.6	85.0	89.6
30~34세	37.5	46.0	34.1	41.8	33.2	37.8	31.3	34.7	21.8	28.5	49.5	59.7
35~39세	19.2	23.3	15.6	19.2	16.2	19.5	13.8	17.2	9.7	12.1	29.0	35.6
40~44세	11.3	14.7	8.6	12.0	9.3	12.3	7.3	10.1	9.0	8.4	17.8	23.3
45~49세	6.4	9.75	5.4	7.9	5.5	8.3	4.2	6.8	6.6	7.4	9.6	15.2
평균 미혼율	37.2	42.5	34.7	39.4	33.4	37.5	30.4	34.6	29.4	29.9	46.5	53.8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_표본 (20%)부분,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15세이상, 내국인)-시군구(2015, 2020)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모(母)의 연령별(20~49세) 출산율, 타지역 대비 저조(특히 30~34세 연령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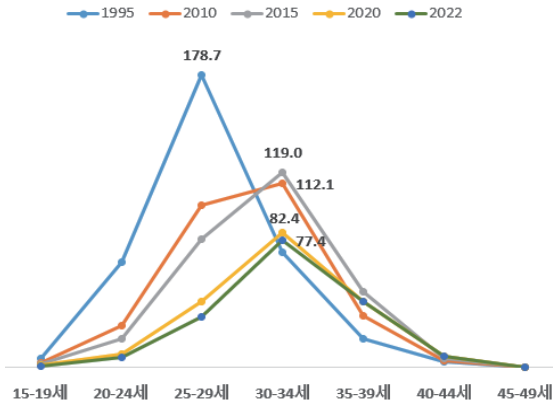
- ‘모(母)의 연령별(20~49세) 출산율’은 ’22년의 경우 25~29세 출산율은 천 명당 30.6명으로 광역 도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았고, 30~34세 출산율은 77.4명으로 광역 도단위에서 최저치로 나타남. 35~39세 출산율은 40.2명으로 전국 평균(44.1명) 보다 낮고, 광역시 단위에서 보여주는 42.3~47.4명 수준보다도 저조했음
- 또한, ’12년에서 ’22년까지 10년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감소폭 차이를 보면, 25~29세와 30~34세 출산율 감소폭은 전국평균과 인구규모가 유사한 강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반면, 35~39세와 40~44세 출산율의 증가폭은 전국평균과 강원도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 전북자치도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단위에서 가장 저조한 반면, 되레 30대 후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어 전국단위에서도 저조함
- 결과적으로, 전북자치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차이가 합계출산율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30~34세 연령대의 출산율 차이가 합계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9] 시도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비교(2012,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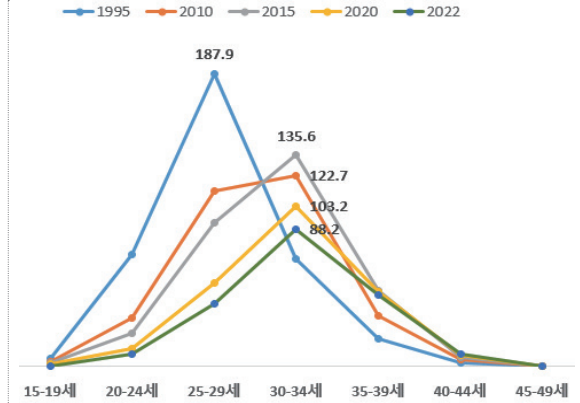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22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16.0	77.4	121.9	39.0	4.9	0.2	4.1	24.0	73.5	44.1	8.0	0.2
서울	7.9	49.2	108.0	42.0	5.4	0.2	1.4	9.9	53.5	43.4	8.7	0.2
부산	11.1	59.0	113.9	38.0	4.6	0.2	3.0	19.2	70.5	42.3	7.6	0.1
대구	12.4	70.0	122.0	35.5	3.8	0.1	3.3	23.6	75.4	39.7	6.9	0.1
인천	15.6	79.1	120.2	39.6	5.0	0.2	4.5	24.3	67.9	43.1	8.0	0.2
광주	16.8	78.9	122.0	36.1	4.5	0.2	4.1	28.8	80.6	45.1	7.4	0.2
대전	16.1	79.8	122.7	38.2	5.1	0.2	5.0	26.8	78.5	47.4	8.3	0.2
울산	16.4	102.6	139.9	35.5	3.8	0.1	4.4	31.6	87.5	37.5	6.5	0.1
세종	29.3	101.1	141.9	38.0	7.8	0.0	6.1	40.5	112.6	55.7	9.3	0.1
경기	16.3	83.1	126.4	40.1	5.0	0.2	4.0	25.7	80.0	47.8	8.7	0.2
강원	21.0	93.9	117.2	35.3	5.1	0.2	8.2	43.1	86.8	44.8	8.4	0.2
충북	23.8	104.4	127.5	35.9	4.3	0.2	7.5	37.9	81.6	38.9	6.2	0.2
충남	29.3	113.0	130.6	34.9	4.9	0.2	7.6	41.9	83.7	40.1	6.9	0.2
전북	23.4	96.2	122.7	37.2	5.5	0.2	5.8	30.6	77.4	40.2	6.8	0.2
전남	28.8	113.6	137.5	39.8	5.6	0.2	8.1	40.5	88.2	45.8	8.2	0.2
경북	23.6	101.8	132.0	35.4	4.4	0.2	6.3	38.2	89.0	42.5	7.7	0.2
경남	19.8	103.5	136.9	36.3	4.5	0.1	5.3	33.2	82.3	38.0	6.5	0.1
제주	23.2	98.9	136.5	50.8	8.0	0.5	5.6	34.2	82.5	49.0	10.0	0.2

자료 : 「인구동향조사」(모의 연령대별 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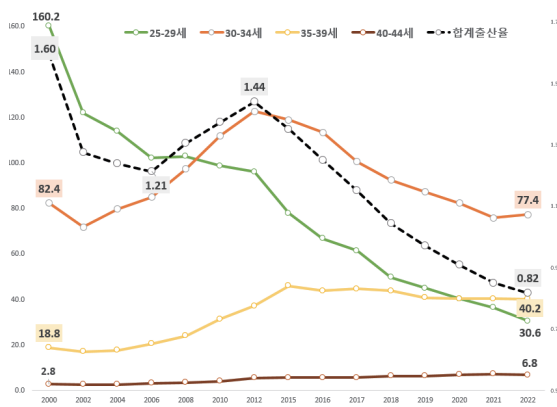


[그림 6] 전북 모의 연령별 출산율 (1995, 2010, 2015, 202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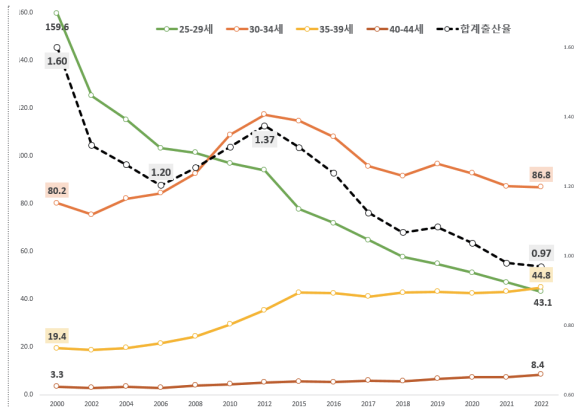


[그림 7] 전남 모의 연령별 출산율 (1995, 2010, 2015, 2020, 2022)

○ 전북자치도와 인구규모는 비슷하나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 강원도와 비교하면, 핵심적인 주출산 연령인 30~34세 출산율의 감소폭은 전북자치도가 강원도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름. 이러한 현상이 합계출산율 감소폭에 반영되어 강원도보다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8] 전북의 모연령대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2000-2022)



[그림 9] 강원도의 모연령대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2000-2022)

☑ 가임연령(20~49세) 기혼여성의 높은 무자녀 비율 현황 및 출산 지연 효과

○ 전국 가임연령대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무자녀 비율'은 '20년 14.5%로 5년 전(11.2%) 보다 약 30%가 증가함. 서울의 무자녀 비율은 5년 전보다 4.2%p가 증가한 1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이 13.2%로 높게 나타남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전북자치도의 경우 '20년 가임연령의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은 '15년 8.8%에서 3.0%p가 증가한 11.8%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감소함. 특히 25-29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기혼여성 5명 중 약 2명은 무자녀), 다음으로 30-34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전북과 전남의 가임연령 기혼자의 무자녀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합계출산율은 전북 0.91명, 전남 1.15명으로 -0.24명의 차이를 나타냄. 이런 현상은 주출산연령인 25-29세와 30-34세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전남보다 전북이 각각 4.6%p, 2.3%p씩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원인은 가임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출산의 양적차원)'과 '출산 지연(출산의 시기)'이라는 두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

[표 10] 가임연령의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현황(2015, 2020)

구분	전국 평균		전북		강원		전남		세종		서울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24세	39.1	43.0	31.7	35.7	35.2	44.4	30.1	35.3	37.5	37.8	45.5	47.0
25-29세	40.8	47.5	28.5	38.1	34.1	41.8	28.5	33.5	39.9	46.8	55.2	64.2
30-34세	22.9	30.6	17.1	22.1	18.4	24.5	16.4	19.8	19.8	27.6	32.1	43.9
35-39세	9.8	14.1	7.6	11.7	9.0	14.0	7.1	11.9	8.0	10.3	13.5	19.0
40-44세	5.9	8.7	4.9	7.5	5.6	8.8	4.4	7.6	6.0	7.2	7.4	10.7
45-49세	4.2	6.5	3.7	5.3	5.5	7.4	3.8	6.0	6.5	5.5	4.6	7.3
평균 출생자녀수	1.9	1.8	2.0	1.9	1.9	1.8	2.1	1.9	1.8	1.8	1.8	1.7
20-49세	11.2	14.5	8.8	11.8	10.4	14.3	8.5	11.6	11.9	13.2	14.6	18.8

자료 : KOSIS 인구총조사_표본 (20%)부분,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 (15세이상, 내국인)-시군구(2015, 2020)

-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중을 가임연령 여성인구 규모는 유사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높은 전남과 비교해 보면, '22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첫째아 비중은 51.4%로 전남(49%) 보다 2.4%p 높은 반면, 둘째아 비중은 0.7%p 낮고, 셋째아 비중은 1.6%p 낮음. 즉, 전북은 전남 대비 첫째아 비중은 높으나 둘째아 이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첫째아 출생 비중은 높아지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이에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표 11]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2012, 2022)

(단위: %, %p)

구분	전국		전북		강원		전남		세종		서울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2012	2022
첫째아	51.4	58.2	46.5	51.4	47.5	53.5	45.1	49.0	44.0	56.9	57.6	65.0
둘째아	38.0	33.7	38.8	37.2	39.4	35.8	38.7	37.9	41.3	34.8	35.1	29.7
셋째아 이상	10.4	8.1	14.5	11.4	13.0	10.7	16.1	13.0	14.7	8.3	7.0	5.1

자료 :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산순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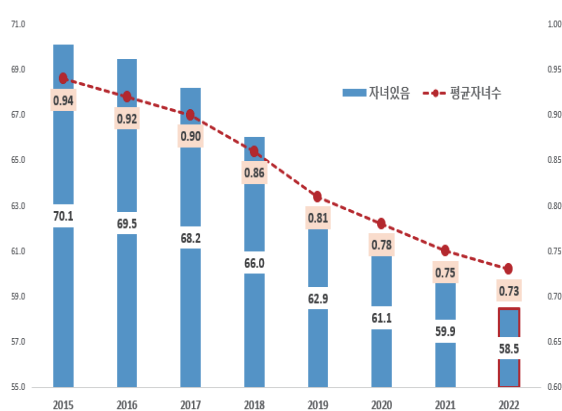
○ 게다가 전북자치도의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15년 0.94명에서 '22년 0.7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22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인 비율은 14.1%에 불과했음

[표 12]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현황(2015,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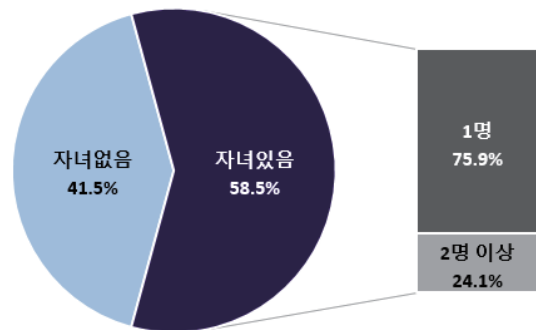
(단위: 쌍, 명)

구분	연도	합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있음		평균 출생아 수
					1명	2명 이상	
전국	2015년	1,179,006	419,113	759,893	564,833	195,060	0.82
	2022년	815,357	378,491	436,866	350,827	86,039	0.65
전북	2015년	34,101	10,193	23,908	16,203	7,706	0.94
	2022년	21,018	8,730	12,288	9,329	2,959	0.73
전남	2015년	33,457	9,303	24,154	16,062	8,093	0.98
	2022년	22,312	8,601	13,711	10,021	3,690	0.79

자료 : 통계청「신혼부부통계」



[그림 10] 전북 신혼부부의 자녀 현황(2015-2022)



[그림 11] 전북 신혼부부의 자녀 현황(2022)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4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과제

✓ 20~39세 청년 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자치도 만들기' 정책 필요

-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은 15~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지만 실제적인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은 20~39세의 청년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2020년 대비 2023년의 20~39세 청년인구의 감소는 남성이 -8.6%, 여성이 -9.8% 감소로 여성의 감소율이 1.2%p 더 높아 여성의 전북자치도 지역 선택의 매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고유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동경, 생태적 가치와 안전 추구 등을 선호하는 청년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청년친화도시" 조성 필요

✓ 가임연령(15~49세)여성 중 30~34세 주출산연령대의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필요

- 전북자치도의 낮은 합계출산율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가임연령 여성의 미혼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임
- 가임연령 여성, 특히 주출산연령(30~34) 여성의 혼인연령과 미혼율을 낮추는 방향, 다시 말해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정보 제공과 결혼비용 부담 완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 등 결혼이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
- 특히, 전북자치도 가임연령 여성 중 30~34세 주출산연령대의 미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출산연령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

✓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도입 등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차별화와 사회 전반의 다자녀가구 우대 분위기 조성 필요

-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인구의 유입 확대를 위해 타 지역 출신과 결혼 또는 기러기 가족의 배우자 이주 지원 등 가족 이주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 필요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또한, 첫째아 출산 이후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해 다자녀가구 생애주기 단계별(출산·의료비 지원, 무상 임대주택제도 도입, 양육·교육비 자녀수 차등 지원, 실생활 밀접한 공공요금 감면·우대 및 세금혜택 등) 지원정책 강화,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정책 고려 필요

☑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육아 친화지역 1위 추구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출산연령이 25~29세였지만, 2000년대 들어 주출산연령이 30~34세로 이동하였고, 전북자치도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의 출산율이 매우 낮아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30~34세는 가장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기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 및 직장내 불이익 등의 우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 등 출산·육아 우수기업(기관)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우수지역 추구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친화적인 지역 만들기 정책이 필요함

☑ 2030대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 강화 필요

-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전북자치도의 인구 감소와 달리 외국인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외국인 유입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유지해 주고, 유학생·외국인근로자 등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령화를 완화시키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함께 정책적 설계(수요)에 따라 공급(규모) 조정 또한 가능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해외 거주 배우자 등 가족 초청이 가능함. 이에 유입된 외국인력과 동반가족(배우자, 자녀)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촘촘한 정착지원 등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 강화 필요

☑ 합계출산율 해석의 한계 고려 필요

- 합계출산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단위 비교나 전국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와 저출생 정책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

- 합계출산율은 특정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고 평균값들의 합산으로 변화하는 출산 환경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 대비 증가 및 감소는 분자요인인 출생아 수와 분모요인인 가임여성인구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그 지역의 출생아 수, 가임연령 여성인구 요인으로만 규정 짓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합계출산율 증감 변화에 대한 해석 시, 지역의 인구규모,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 가임연령 여성인구 규모와 분포, 결혼시기와 출산연령 변화 등 보다 다양한 근거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하고, 합계출산율로부터 미혼인구, 무자녀율, 인구이동 등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봐야 함

-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변함없어도 가임여성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올라가며, 가임여성인구가 증가하면 역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인구가 전년대비 동반 감소해도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은 증가할 수 있고, 출생아수와 가임여성인구가 전년 대비 동반 증가해도 연령별 출산율이 감소할 수 있음

〈합계출산율 해석의 주의 사항 사례〉

〈참고자료〉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71-92.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2021). 지역인구변화 관측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제405호.

최성은, 최영준(2021).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재이해 :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복지행정특별위원회 기획세미나, 695-711.

iSSUE
BRIEFING vol.306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